

‘용단 폭격’ 화약고 된 블루라인...사망 500명 육박

이스라엘, 레바논 650차례 공습
2006년 전쟁 이후 최악의 상황
무선호출기 시발 전면전 가능성
美, 중동 긴장 고려해 병력 증파
이란·국제사회 민간 피해 비난



이스라엘군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해 용단 폭격을 감행한 지난 23일(현지시간) 레바논 남부 국경지대 마을이 공습으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스라엘군이 지난 23일(현지시간) 가자전쟁에 무력으로 개입해온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해 용단 폭격을 감행하면서 레바논이 2006년 전쟁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을 통해 레바논 전역에서 최근 24시간 동안 약 650차례의 공습을 감행, 헤즈볼라 시설 1천600개 이상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 수석대변인 다니엘 하加里 소장은 “주요 공격 목표가 헤즈볼라의 순항 미사일, 장·단거리 로켓 발사대 및 공격용 드론 발진 기지였다”고 주장했다.

레바논 보건부는 공습으로 지금까지 어린이와 여성 등 최소 42명이 사망했으며 1천657명이 부상당했다고 집계했다.

이번 폭격으로 레바논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한 달 넘게 이어졌던 2006년 이스라엘-헤즈볼라간 2차 레바논 전쟁 당시 레바논측 사망자 수 추정치(1천191명)의 절반에 육박한다.

7월 전쟁이라고도 불리는 2차 레바

논 전쟁에서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약한 달 간 교전하다 유엔의 중재로 휴전했다.

무선호출기(삐삐) 무더기 폭발과 최고위급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 폭사 등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헤즈볼라가 전날 단행한 수백발의 로켓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은 추가적인 공습은 물론 지상군이 양국 국경인 ‘블루라인’을 넘어 진격하는 전면전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하加里 대변인은 이날 250발에 포함해 헤즈볼라를 가자전쟁 발발 후 약 9천발의 로켓을 이스라엘에 쏘았다면서

“헤즈볼라를 국경 인근에서 멀리 밀어내기 위해 모든 조치를 할 것이다.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필요시 레바논에서 지상전을 감행할 준비도 돼 있다”고 강조했다.

헤즈볼라도 이스라엘군의 맹공에 대응해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 인근의 방산업체 라파엘을 비롯한 3곳에 로켓을 쏘았다고 밝혔지만 피해 상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헤즈볼라가 속한 ‘저항의 축’은 이스라엘군의 대대적인 공습을 맹비난했다.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이란의 나세르 칸아니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이스라

엘의 공습을 ‘미친 짓’이라며 “시온주의자(이스라엘)의 새로운 모험이 위험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사회도 엄청난 민간인 피해를 동반한 이스라엘의 폭격을 비난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 안보 정책 고위 대표의 유엔 총회 참석차 방문한 뉴욕에서 기자들에게 “상황이 극도로 위험하고 걱정스럽다. 거의 전면전 상태라고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갈수록 늘어나는 민간인 피해를 언급하면서 “이게 전쟁이 아니라면 이런 상황을 뭐라고 불러야 하는

지 모르겠다”고 비판했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가장 우려하는 이스라엘군의 월경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우방인 미국은 분쟁 확산을 우려하면서 중동에 소규모 병력을 증파했다.

팻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동의 높아진 긴장을 고려하고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다는 차원에서 이미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 그 지역(중동)에 우리의 무력을 증강하기 위해 소수의 미군 병력을 추가로 파견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마리 앙투아네트의 목걸이?
英 귀족 착용한 목걸이 경매
300캐럿 다이아몬드 최대 37억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대관식에 참석한 귀족이 착용했던 300캐럿짜리 희귀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경매에 나온다.



지난 23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18세기에 만들어진 골동품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오는 11월 소더비 제네바 경매에 출품된다. <사진>

이 목걸이는 500개의 다이아몬드가 술이 달린 세 개의 줄 모양으로 연결된 것이 특징이다.

영국 앵글시 후작 가문이 1960년대까지 소유했다가 판매한 것으로, 1953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대관식과 그 이전 1937년 조지 6세의 대관식에서 앵글시 후작 가문 사람이 이 목걸이를 착용했다. 앵글시 가문이 목걸이를 판매한 이후에는 그 모습이 약 50년간 공개되지 않다가 이번에 경매로 나오게 됐다. 흥미로운 점은 일부 보석 역사가들이 이 목걸이가 프랑스의 왕비였던 마리 앙투아네트의 보석 스캔들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는 점이다.

18세기 후반 마리 앙투아네트는 수백개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호화스러운 목걸이를 가져가면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스캔들이 휩쓸린 적이 있다.

문제의 목걸이는 루이 15세가 자신의 애첩 뒤바리 부인을 위해 보석상에 제작을 의뢰한 것이었으나, 왕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못하게 됐다. 이 목걸이를 탐낸 백작부인 라모트는 마리 앙투아네트의 환심을 사고 싶었던 추기경 드 로앙에게 접근해 ‘왕비가 목걸이를 원하니 보석상에서 목걸이를 가져오면 전달하겠다’고 꼬드겼다. 추기경은 대금을 할부로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고는 목걸이를 받아왔으나 백작부인은 이를 분해해 이곳저곳에 팔아버렸고, 이 사기극은 보석상이 왕비에게 대금 지급을 독촉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역사가들은 백작부인이 팔아넘긴 다이아몬드가 이번에 경매에 나온 목걸이에 일부 들어갔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는 가설일 뿐이다. 이 목걸이는 소더비 제네바 경매에 나오면 13만~20만파운드(24억~37억원) 사이의 높은 가격에 낙찰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더 거칠어진 트럼프 독설...해리스에 “공산주의자·美的 재앙·바보”

경합주 펜실베이니아 유세...“낙태 연방 차원에서 다루지 않을 것”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의 추가 TV토론을 거부한 뒤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과 독설의 강도를 높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대선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 인디애나에서 가진 유세에서 “그녀(해리스)는 공산주의자”라고 규정한 뒤 “우리는 공산주의자 대통령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해리스 불가본’을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카말라, 당신은 미국에 대한 재앙”이라며 “당신은 해고다. 어서 물러나라”고 말하기도 했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정책 면에서도 그는 해리스 부통령이 집권하면 “국경을 개방”하고 “총기를 빼앗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해리스 부통령은 최근 TV토론과 유세 등 계기에 자신이 대통령이면 국경통제 강화법을 재추진할 것이며, 총기 전면금지를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1일, 해리스 부통령과 추가 TV토론을 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까지 남은 40여일 동안 상대 후보의 반박 기회가 없는 유세와 광고 등을 통해 해리스 전 대통령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에 집중하려는 것

으로 보인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캠프가 최대 쟁점 이슈로 내세우는 낙태 허용 여부와 관련, 각 주(州)의 결정에 맡긴다는 자신의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낙태 문제를 연방정부에서 다루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연방 차원에서 낙태 금지 입법에 나설 것이라는 해리스 부통령 공세에 차단막을 친 것이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낙태를 금지하는 주에서도 성폭력에 의한 임신의 경우나 여성의 건강 문제 등에 따른 예외적인 낙태 허용은 하게 할 것

/연합뉴스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